종안스님은?

40세 출가 38년간 참선 3년동안 목숨건 두타행

1924년 충남 조치원에서 태어난 종안스님은 어린시절부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5세 때 서당에서 〈천자문〉을 쳐음 배울 때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를 황'이란 문장을 읽고, 이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9세 때 부친이 사망하면서 인생에 대한 무상을 쳐음 체험하고 한학 공부를 단념했다가, 14세 때 다시 유명한 서당에서 유가·도가 경전을 읽었다.

스님은 젊은 시절에는 도가 수행에 몰입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고가정을 꾸렸지만 인생의 희로애락이란 무상을 절감했다. 도가의 공부로는 생사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 불문에 귀의했다.

40세의 늦은 나이에 갑사로 출가했다. 1970년 뒤늦게 화엄사 도광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이후 지리산 덕유산 백운산 등지의 토굴과 화엄사 해인사 월명사 수도암 묘향대 칠불암 봉암사 등 유명 선방을 돌며 정진했다. 확철대오를 서원하며 5년전부터 태안사 가은암을 짓고 보림에 들었다.



◇'하루 일 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종안스님은 참선정진 시간 이외에는 항상 울력을 하신다.

(下心)공부부터 시작했다. 6년간은 일부러 수계를 하지 않고 부목으로 살았다. 오이 호박 배추 등 채소를 기르고, 땔나무를 하고, 밥을 정성껏 지었다. 다섯 명의 행자가 있었지만, 종안스님이 도감을 맡았다. 행자들이 밭갈고 나무할 때 게을러지면, 곧잘 이런 법문을 하며 격려했다.

"농부들은 고추밭의 잡풀과 병난 고추는 뽑아 버리고 좋은 고추만 잘 가꾼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나쁜 마음 씻어버리고, 선한 마음 갖는 것이 좋은 고추와 나무 가꾸는 일과 다름없다. 일하는 것 어느 하나 도(道)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고된 행자생활을 6년이나 자청해 하면서도 주경야독하는 공부를 쉬지 않았다. 밤에는 낮에 행한 모든 일을 되돌아 보고 참선과 주력 수행을 부지런히 했다.

"만고 풍진을 겪어야 사람이 되지. 세상 무상을 알고 덤벼야 해. 오욕락의 세상살이가 지옥임을 알아야 공(空) 도리를 깨달을 수 있어. 원래 마음은 공해서 한 티끌도 붙을 수 없거든."

세상 사람들은 상(相)에 걸려 산다.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현상에 집착하고 휘둘리며 산다. 하지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실상(實相)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다. 현상에 얽매여 살면 살아도 산 게 아니요, 실상에서 살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란 게 스님의 설명이다.

실상을 볼 수 있으면 이(理)와 사(事)에 다 통한다. 진여(眞如)의 세계를 보니 미물과 축생의 생멸을 다 알고, 생명체의 불성이 다 같음을 본다. 부처님께서 열반 후 '곽시쌍부'의 이적을 보인 것은 생사가 없는 실상을 보인 대표적인 예라고 하신다.

생사 없는 실상은 마음 비우는 공부를 통해 볼 수 있다. 완전한 무상을 체험하고 무심으로 살아야만 자성(自性) 자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스님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무(無)'자 화두를 든다. 스님은 이를 "사람의 도는 없는 데(無)서 밝아진다. 비우면 비울수록 밝아진다"는 말로 설명한다.

스님의 법문은 무심에서 나온 것이어서 무량했다. 출가이후 경전은 전혀 읽지 않았지만, 〈육조단경〉의 내용을 눈으로 본 것처럼 자세히 묘사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구체적이었다. 마음에서 우러난 법문은 걸림이 없고 더 진실에 가깝다. 경전공부를 통해 지견이 나면 좋은 법문은 할 수 있지만, 깨달음을 통해 불법의 대의를 요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직관적인 체험이 없는 법문은 얼마나 공허한가.

스님의 이런 무심의 경지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치열한 구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물론 당신은 "무심의 경지는 여여하나, 확철대오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겸손해 하신다.

> 산새들이 나를 두려워 않듯 나도 짐승들과 한마음 이지"

스님은 한동안 무인지경인 덕유산 은신암 토굴에서 홀로 용맹정진 했다. 3년째 생식으로 일종식을 하며 수행하던 중 문득, '부처님 은덕으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생식가루 타먹으며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편히 수행하면 언제 대도를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발심으로 부처님의 6년 설산 고행을 본받아 3년간의 두타행(頭陀行)에 나서기로 했다. 내면의 목소리는 스님에게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화답했다.

첫째 묵언할 것, 둘째 오래 좌선할 것, 셋째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할 것, 넷째 추녀 안에 들지 말고 한데(露地)서 잘 것, 다섯째 거리에 앉아서 먹을 것, 여섯째 발끝 닿는대로 갈 것, 일곱째 무덤 옆에서 무상관(無常觀)을 할 것, 여덟째 옷은 단벌만 입을 것, 아홉째 6바라밀 짚신을 삼아 신고, 열번째 갓을 쓰고, 열한번째 하늘을 보지말 것 등등.(경전상의 12두타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스님은 얼어죽지 않기 위해 포행을 하며 겨울을 나는 등 고행을 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문득, 이렇게 노래했다.

육바라밀 행을 닦아 아승지겁 뛰어넘고/ 무명속에 뛰어들어 나고죽는 생사고를 뛰어넘고/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있고/ 불생불멸 조국통일 상락아정 무위도를/ 사람마다 다 알 줄로 팔만장경 유전했네/ 사람되어 못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닦는 일을 알다보면/ 닦는 일은 앉고 서고 서고 앉아 일동일체로다/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의심하고 의심하여/ 의심타파 하십시오 의심타파 하십시오/ 의심타파 하고보면 삼세로 지은업장 역력히 다 알소라/ 역력히 내다보니 적적한 명월아래 바늘 끝도 틈이 없네/ 몽중 오는 소식 누가 알으리까/ 내외명철 밝아지면 생사 없는 보배가 거기에 잠겨있네.

그러나 스님의 두타행은 3년째 회향을 몇 달 앞두고, 곡성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좌절됐다. 짚신에 누비옷을 입고 삿갓을 쓰고 걸식하는 걸인을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간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 스님은 3년간의 두타행을 마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이 때보다 나날이 깨우침이 큰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한 겨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의식은 더욱 성성해졌고 깨달음은 더욱 깊어만 갔다. 목숨을 내어놓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계는 날마다 새로웠다. '고통 받는 이 몸뚱어리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무상관이 여실했다.

스님은 두타행을 통해 현상과 실상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 몸뚱어리가 있어야 도를 닦을 수 있고, 환상이 있어야 실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만물만상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스님은 그후 지리산, 등지의 토굴과 화엄사 해인사 월명사 수도암 묘향대 칠불암 봉암사 등 선방을 돌며 정진했다. '일체중생을 스승 삼아 배우는 것이 보림' 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본 기자는 스님과 함께 저녁 9시부터 잠들기전 10시까지 선방에서 정진에 들었다. 다음날 새벽 "짧지만 정진을 좀 하고 가야 찾아 온 보람이 있지" 하시는 권유에 따라 새벽 2시 벽에 걸린 부처님 상호를 보며 예불을 마친 후, 아침 공양시간인 6시까지 4시간동안 쉬지 않고 스님을 따라 좌선에 들었다.

1시간이 지나자 본 기자의 다리와 허리가 아파오고 온갖 번뇌가 고개를 쳐들었다. 노스님도 함께 정진하는데, 젊은 후학이 나태한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는 생각에 '이 뭣고' 화두를 다시 다잡았다.

정진이 끝난 후 스님 말씀, "오래 잘 앉아 있구만, 그려."

미망속에 헤맨 4시간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종안스님이 80 가까운 나이에도 젊은 수좌 못지않게 용맹정진할 수 있는 것은 두타행 하던 때의 용맹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스님은 일상생활 속의 수행을 다시 금 당부하셨다.

"현상 속에서 그대로 배워야 해. 육안으로 무상을 느끼고, 무심으로 행동해야 돼. 자기 자신을 떠나야만 무상을 배운거야. 망상을 죽이고, 진여를 살리는 공부를 잊어선 안돼. 수좌는 업으로 뭉쳐있는 몸뚱이와 싸워, 고통을 인내로 참아넘기면서 업장을 녹여야 해. 결국 도의 진미를 알게 되면 기가 막혀, 즐거움에 웃음만 나오지. 의단이 제대로 서면 등정일여에 따로 화두 들 것이 없어. 무아·무심하면 도 아닌 것이 없느니라."

곡성=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적인스님

어쩌다 길을 갈때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외치며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말하는 "말씀"까지 한 장 쥐어주고 간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복과 염주를 '사탄'으로 보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래도 길을 갈 때는 괜찮은 편이지만 버스 안이나 전철, 기차 안에서는 그 사람이 내릴 때까지 치러야 하는 곤욕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탄'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을 인수하여 장엄하게 불보살의 도량으로 변모시켜 '말씀'을 걷어내는 작업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이를 두고 무어라 말할까.

여기 그 작업을 스스럼없이 해낸 스님이 한 분 계시다. 바로 적인 스님이다.

적인 스님이 수행하는 도량은 참으로 특이하다. 조치원 역에서 내려 금방이라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곳은 전통의 사찰이름, 즉 사(寺)나 암(庵)이 아닌, 문화원으로 불린다. 불교문화원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절이라는 수행처로 이해하기 보다는 불교의 문화를 전달하는 장소 정도로 착각하기 쉽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으니 말이다.

적인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동학사로 출가하여 동학강원과 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복지 시설에 들어가는등 복지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다.

교회 인수 법당으로 꾸며 청소년 교화 남다른 노력

스님이 조치원 문화원과 인연을 가진 것은 9년전. 불심이 깊은 그곳의 몇몇 신도들이 모여 문화원이란 공간을 만들었고 또 스님을 한 분 모시고 싶다는 원력으로 적인 스님이 인연이 되어 가게 되었다. 스님이 그곳에 가서 일년쯤 되었을까, 부근 교회를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새로 절을 짓는 번거로움 보다 교회를 인수해 법당으로 꾸민다면 이 지역에 이보다 더 큰 포교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임원 신도들에게 말하였지만 흔쾌히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하나는 재정적 문제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회 인수라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를 일일히 설득하여 간신히 그 교회를 인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러자 교회측에서도 절이 들어선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는지 한동안 밀고 당기고 결국 스님의 원력대로 교회를 인수하여 십자가를 걷어내고 부처님을 모시는데 성공했다. 모두가 당연히 가질만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부수어 버린, 정말 용기있는 스님이 아닐 수 없다.

조치원 불교문화원은 다른 사암과는 다르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절집을 닮은 형태는 없지만 참으로 개성있는 도량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우뚝 솟은 교회 건물에 절을 상징하는 만(卍)자를 달고 부처님을 모신 모습을 말이다.

조치원 부근에는 사찰들이 꽤 있지만 적인스님 만큼 청소년 포교를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스님은 드물다. 매주 어린이 법회는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 시내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사찰 안에서 10여명이 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집에서 공부가 안되는 학생, 약간 문제성은 있지만 그 문제성을 스님의 힘으로 교화해 보겠다고 받아들인 아이들, 그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다. 하지만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 문화원 스님 품으로 와 함께 생활하고 공부한다. 스님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그들중 어떤 아이는 전교 1, 2등의 성적을 올리게 됐다. 일요일 어린이법회 때는 그들 모두가 지도교사가 되어 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매일 매일 피어난다. 늘 어린이 청소년들과 부대끼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말 살맛 나는 포교를 하는



곳이 그곳이다. 그렇다고 그곳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찰은 결코 아니다. 들어오는 보시금을 어떻게든지 다 신도들에게 회향하는 적인 스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자신을 연마하고 다듬어 가느냐는 자기 자신에 달려 있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적인 스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스님들 각자의 원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 모두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해 낼 수 있고 만들어 질 수 있는 멋진 작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떨쳐버릴 수가 없다. 작은 사찰이든 큰 사찰이든 그것을 이끌어 가는 스님들은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그 지도자들이 앞에서 부처님일을 열심히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펼쳐 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불자들의 몫이다. 누구나가 제 몫을 하고 제 자리를 찾을 때 이 사바는 불국토로 만들어 질 것이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교도까지도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원사 주지

아미타 부처님 몸에핀 열여섯송이 친견 무차 대법회
(삼존불 개금 및 관음백불 점안 대법회)

경진년(경진년) 섣달 보름날 오후(밤)12시 가량 밝은 달 주변에 오색 무지개가 둥근 타원형을 그리며 넓게 자리를 잡고 오색 찬란하게 하늘을 3,4시간 수 놓다 소납은 넋을 잃을채 하늘을 감탄하며 한편은 기쁨에 소뼉치며 춤을 추면서 하늘의 길조가 곧 땅의 길조로 이어지며 그빛이 한반도를 빛추는 느낌에 반만년의 시련과 고통, 힘든 이 국토에 큰 영광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왔다.

신사년(신사년)에 삼재가 들어오므로 삼재자를 위해 부처님전에 개금공양을 올려야 겠다는 발원으로, 평소 예불시 상단 불보살님 한단부분에 개금 탈색이 심한것을 보고 정성 부족 한탄 참회하면선, 또한 나라와 신도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금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개금 도색 하기위해 탁자에서 내려놓고 털고 닦는 도중 소납과 불모의 누에 물체가 환하게 빛쳐오므로 발견하게 되었다. 개금불사를 추진해야 겠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오늘에야 부처님의 가피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법화경 속에 우담바라가 피면 나라에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나라 안팎을 안락과 평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루신다 하셨다. 3000년 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상속의 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말법(말법)시대에는 중생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바라고, 국가의 전륜성왕이 나올길 바라는 것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종교적인 상징이 더욱 더 크다. 불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알고 행동하며 깨닫는 것이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삶을 이르시길 다같이 기원 합시다.

운봉산 백운사 주지 마나
회장 강 공덕화
저무 이 보륜화
신도회 합장

법 회 안 내

- 일 시 : 불기 2545년(2001년) 3월 30일(음 3.6) 금요일 오전 10시
- 법 문 : 법흥 대종사(연합회 중명큰스님) 및 영산재 큰스님 기간 단체장 및 유지인사
- 일 시 : 불기 2545년(2001년) 3월 31일(음 3.7) 토요일 오전 10시
- 법 문 : 정각 큰스님(연합호 상임 부회장), 기도 및 축원
- 일 시 : 불기 2545년(2001년) 4월1일(음 3.8) 일요일 오전 10시
- 법 문 : 박완일(동국대 교수), 삼존불 개금 및 일백불 점안 대법회(오색사 드림)

◐ 신도님 철야기도 : 3월 30일(음 3.6), 3월 31일(음 3.7), 4월1일(음 3.8)
※ 교통난이 우려되니 봉고 이용 바람 : 3일간 봉고 3대 운행 합니다.
동 부산대학 입구(아침 8시 30분, 오후 4시)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산 136번지 운봉산 백 운 사 TEL 051-542-4630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5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 종류 : 3W, 5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인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대원기업 자매회사 단청 외
종합불교전시장 : 032)868-5898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